

제주학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

이 창 기 (영남대 사회학과 교수)

1. 하나의 학문이 독립된 학문영역으로 존립하기 위해서는 고유한 연구대상이나 연구방법을 가져야 한다. 제주학 또는 제주학회가 독립된 학문 또는 독립된 학회로서 존립할 수 있는 근거는 연구대상의 고유성에서 찾을 수 있다. 제주도는 한반도의 여러 지역과 다른 독특한 자연환경과 지리적 여건을 지니고 있으며, 한반도의 보편적인 문화와 상이한 문화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 제주학이 독립된 학문으로 존립하고, 제주학회가 독자적인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바탕이 바로 여기에 있으며, 제주학회가 나아갈 방향도 이를 출발점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2. 제주학이 제주도의 자연과 문화의 특수성에 바탕을 두고 있다면 제주학회의 활동은 제주도가 지니고 있는 자연적·문화적 특수성을 보다 선명하게 드러내고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설명적으로 이해하는 데서 찾아야 한다. 그동안 제주학회가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학회로서는 보기 드물게 진지하고 활발한 활동을 전개할 수 있었던 것은 대상의 고유성과 함께 그 대상에 내재되어 있는 의미의 연관관계를 해명하는 데 충실하였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3. 최근 제주학회의 활동이 다소 침체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은 학회의 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외적 여건이 취약해진 데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학회 본연의 활동에 성실하게 임하지 못한 내부 구성원들의 의욕저하와 내적 여건의 미성숙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4. 학회 활동을 제약하는 외적 여건으로서 제주학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이 크게 저하되지 않았는가 한다. 제주도의 자연과 문화에 대한 가치의식과 긍지가 약화되고, 그 결과로서 제주학이 일반학문의 제주도적 적용 정도로 평가절하 되지는 않았는지 염려된다. 이러한 분위기는 최근 제주사회에 경제적 이해를 중심으로 하는 정책적 과제가 부각되면서 더욱 심화된 것으로 짐작된다. 이러한 지역사회의 관심 저하는 학회활동에 대한 재정적 지원의 약화를 가져오고 연구자들의 의욕을 감퇴시키는 주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6. 학회 내부로 눈을 돌려보면 연구인력의 저변이 확대되지 못하고 기존 연구자들의 연구 의욕이 현저하게 감퇴된 듯한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신진 연구자들의 충원이나 월례 발표회 정기학술대회의 발표논문이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다. 외부의 지원과 논문 발표의 기회가 축소된 데에도 원인이 있겠지만 우리 회원들의 열의가 전만 같지 못한 데에도 큰 원인이 있지 않을까 한다.

7. 제주학에 대한 관심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학회의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 자신들부터 의욕을 가지고 전열을 재정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제주학은 자연과학과 인문사회과학과 정책과학을 한데 아우르고 있다는 데 특징이 있다. 세 영역이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흥미를 더하고 내용을 심화시켜 나갈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인문사회과학이 활동의 중심에 서야 할 것으로 본다. 자연과학과 정책과학은 제주도의 문화적 특성을 바탕으로 해야만 제주학으로서 정체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자연과학이나 정책과학이 제주문화와 접맥되지 않으면 제주학이 아니라 자연과학 일반, 정책과학 일반에 머무를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동시에 인문사회과학은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에 끊임없이 정보와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8. 사회학은 인간의 사회적 행위와 행위의 결합체인 집단을 주요한 연구대상으로 하는 학문으로서 제주문화의 특성을 규명하는 데 매우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는 학문 영역이다. 민속학과 더불어 사회학이 제주학에 학문적 불씨를 지필 수 있었던 것은 사회학의 이러한 성격이 뒷받침된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제주인의 삶의 바탕이 되는 가족연구에서 괄목할만한 업적을 남겼다. 가족 이외에 사회사, 농촌집단, 계층, 사회변동, 사회복지, 여성, 도시사회, 도민의식, 인구, 권력구조, 지역개발 등에도 적지 않은 논저가 발표되었다. 그러나 그간의 사회학적 연구가 가족 연구에 집중됨으로써 여타의 영역으로 학문의 지평이 크게 확대되지 못하였고, 제주도의 사회구조적 특성을 총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체계화의 단계에까지 이르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이 점은 제주학에 관심을 가진 사회학자들이 앞으로 의욕을 가지고 개척해야 할 부분이라 생각된다.

9. 현실적으로 제주학회의 활동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다음 몇 가지 과제를 슬기롭게 극복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 1) 인문사회과학을 중심으로 하여 자연과학과 정책과학이 함께 어우러지는 학문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 2) 사회학을 비롯한 각 학문 분야의 연구가 제주문화 및 제주사회의 특성과 관련하여 진행됨으로써 궁극적으로 제주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 제주문화 및 제주사회의 총체적 구조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체계의 구축을 지향하여야 한다.
- 3) 외부의 지원과 내부의 역량을 결집하여 연구결과를 발표할 수 있는 기회와 지면을 확대함으로써 신진 연구자의 발굴과 기존 연구자의 연구의욕을 촉진시켜야 한다.